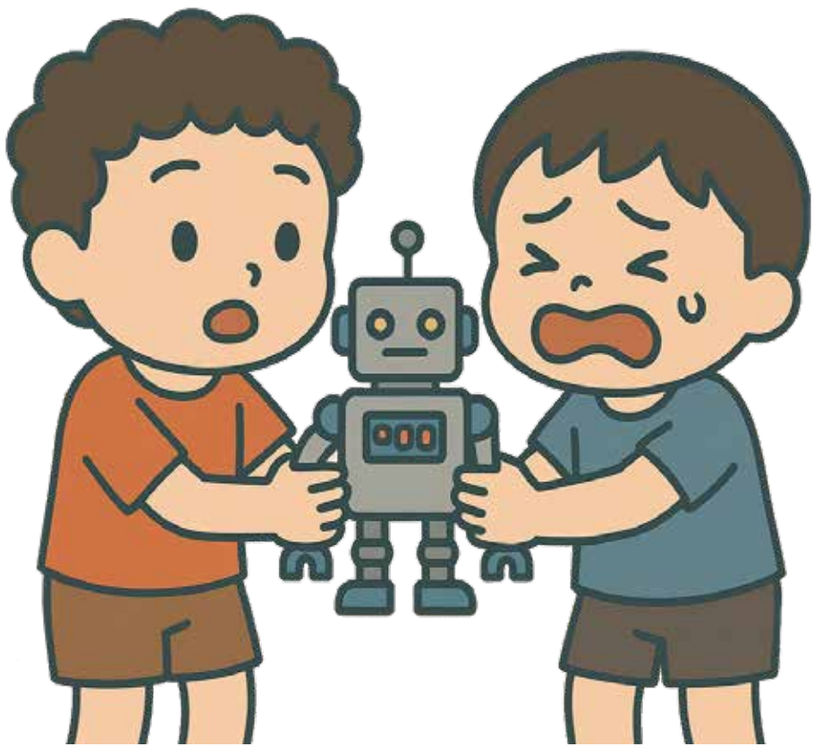
4세 우리 아이를 위한 양육 길라잡이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갈등을 겪어도 관계를 이어가는

사회성과 훈육

1편

사회성에 관한 오해와 진실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런 모습의 우리 아이...
걱정하진 않았나요?



말도 없고 낯가림도 심해요.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친구랑 자주 다퉈요.



혹시 **사회성**이 부족한 것일까요?

사회성이 무엇이길래?

사회성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4세는 사회성이 자라는

골든타임이에요!

사회성과 관련된 4세의 발달 특징



사회성 발달

규칙 이해 및 습득 능력 발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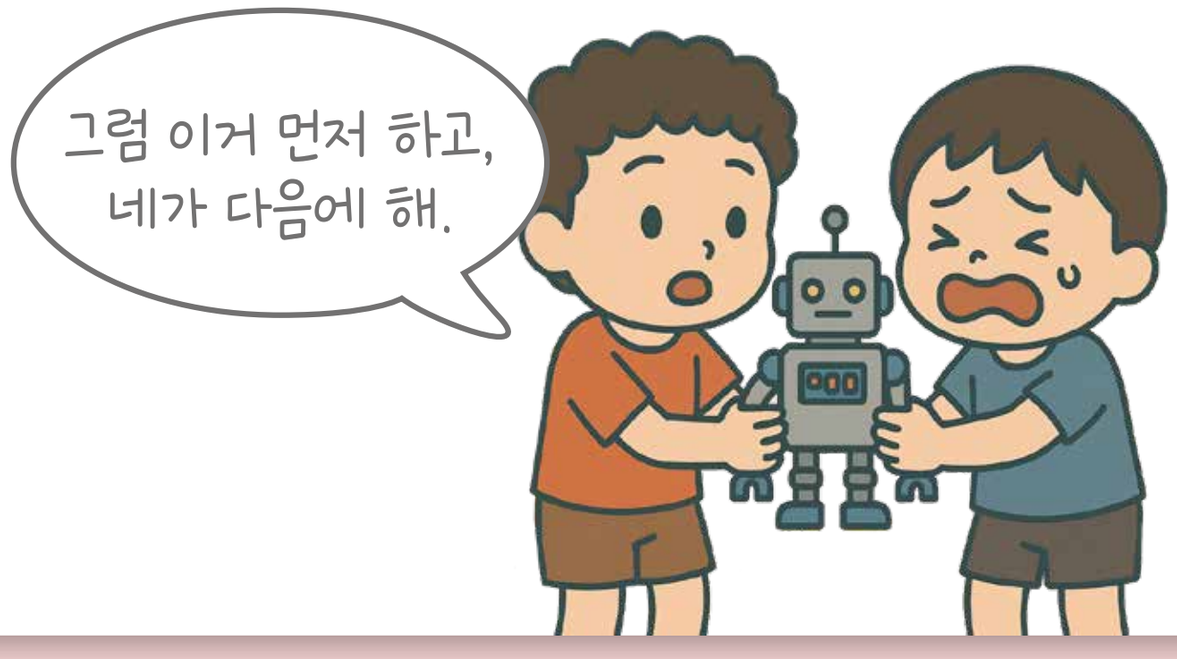


사회성과 관련된 4세의 발달 특징



정서적 공감 능력 발달

갈등 해결 능력 발달





보호자가 걱정하고 생각하는
'사회성'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성을 오해하면
아이의 행동을
잘못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①

혼자 놀면 사회성이 부족하다.

✕

- 혼자 노는 것은 외롭다.
- 사회성이 부족한 신호이다.

○

- 4세는 여전히 병행 놀이 (옆에서 따로 놀기)가 흔한 시기입니다.
- 혼자 놀이하는 것도 자기 조절과 탐색의 시간! 중요한 성장 경험입니다.

사회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②

또래와 갈등은 안 생기는 것이 좋다.

- 싸우는 건 문제 행동! 피하는 것이 좋다.
- 사이좋게만 지내야 사회성이 좋다.

- 갈등은 감정 조절과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갈등 속에서 감정 표현, 양보, 조율을 경험하며 배워 나갑니다.

사회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③

보호자는 아이와 친구처럼 지내야 한다.

✕

- 친구처럼 지내야
  아이도 사회(또래)
  관계를 잘 배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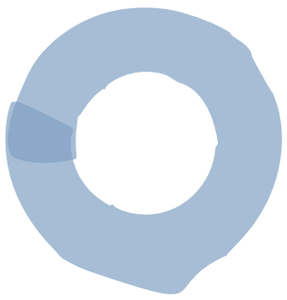
- 아이는 기댈 수 있는 어른,
  안전 기지가 필요합니다.
- '놀이 친구' 가 아니라,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존재가 되어주세요.

사회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④

또래와 자주 놀게만 하면
사회성은 알아서 생긴다.



- 또래와 어울리는 기회 제공만 하면 된다.
- 사회성은 부모의 개입과 무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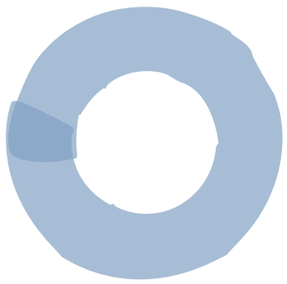
- 놀이 속에서 관계기술을 배우며 사회성이 성장합니다.
- 갈등 중재, 순서 지키기, 감정 나누기 등은 어른(부모, 교사 등)의 지원과 설명이 함께 할 때 자라납니다.

사회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⑤

사회성과 사교성은 같은 말이다.



- 사회성=사교성!
  *사교성: 낯선 사람들 속에서 빨리 어울리는 능력
- 말을 잘하고 친구가 많아야 사회성이 좋다.



- 사회성은 타인과 관계를 맺고 조율하는 능력입니다.
- 말수가 적거나 조용한 아이도 깊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는 등 사회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사회성에 대한 오해와 진실 ⑥

사회성은 타고난다.

✕

- 원래 낯을 가리는 성격이면 사회성이 좋아지기 어렵다.

○

- 사회성은 따뜻한 환경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서서히 자라는 능력입니다.
- 또래와의 상호작용, 부모의 양육 태도, 모델링이 영향을 줍니다.

사회성에 대한

바른 시각은

아이를 보는

바른 시각을 갖게 합니다.

2편 '사회성을 키우는 세 가지 힘'에서 계속됩니다.







교육부 대구광역시교육청 이화여자대학교 산학협력단